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4호 【루게 제24737호】 주제 10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

우리 조국의 동해어장에서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온 나라 수산부문의 앞장에서 만풍가 노래를 휘날려가는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들에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 주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만풍가의 배고둥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로력적열정을 축하하시며 온 나라가 그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시었다.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이룩된 전례없는 생산적양양은 우리 당의 수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에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게 하는 커다란 고무적 힘으로 된다.

나라의 수산업을 하루빨리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고 조국땅 그 어디나 사회주의바다항기가 넘쳐나게 하시라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같은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애국주의를 체철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앞장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시기에 울려 퍼진 동해의 송고포성은 우리 인민들에게 슬리에 대문 회령을 안겨주었고 있다. 물고기대풍,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놀라운 투쟁성과는 당의 사상관철적, 당정책옹호전에 산악같이 펼쳐나설 때 절령 못할 요새, 뽕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다

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경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진것은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고기배를 많이 갖는것과 함께 배들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풍》호고 기배들을 마련해 주신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일반화하여 사회의 수산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12월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모범적인 일군들과 선장, 어로공들에 대한 당 국가표창수석에 불소 참석하시어 언제나 선장에 물고기가 넘쳐나게 하고 포구마다에서는 만풍의 배고둥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는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앉추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상징하는 간직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몸이 그대 그물과 물이 되고 추친이 되고 올해에도 온 나라에 물고기대풍소식, 사회주의바다항기를 편이 안아왔다. 불리한 바닷조건과 원기조건에서도 바다를 비우지 않고 백질불굴의 어로전투를 벌이던 수산부문의 투쟁선과 그들의 정신세계의 밀바람에 놓여있었던 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남다른 어깨를 들이미는 고결한 충정, 모진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강인한 의지, 무슨 일이든 일단 달려붙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밀고나가는 실천정신이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수산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는 결코 조건이 문제가 아니며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어로실적으로 충직하게 만들어 온 나라에 물고기대풍소식이 편이 전해지게 하여야 한다. 올해는 하늘처럼 민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시며 자애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3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한평생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금수산대양군경에 영령의 모습으로 계시는 장군님께 더 높은 물고기잡이성과로 충정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길이 있다.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은 거창한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물고기대 풍은 호르는 사회주의 조국의 바다가 당신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고 날마다 만풍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지퍼울린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사회의 수산부문 전반에 급속히 확대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어려 총돌진하여야 한다. 당과 승결과 배정어 맞는 용맹한 실력가들만이 격랑치는 바다를 다스린다. 사회주의 바다항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뜻을 심장에 조아라고 당정책결사관철의 힘으로 분투할 때만이 제시한 물고기잡이목표점령에서 못해낼 일이 있을 수 없다. 인제나 만전태세를 갖추고 기동적이고 과학적인 집중어로전을 맹렬히 벌여야 한다.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안아온 물고기대풍은 우리 나라 바다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황금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문제는 수산부문의 모든 단위를 어떻게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래로 완강하게 전투적으로 통일이 크게 일관하게 통일되게 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사회의 모든 단위를 어떻게 사상관철과 투쟁기풍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을 깨우치는 징표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어로전투를 실천과 같이 여기고 사전준비를 비롯없이 갖추어다가 물고기배를 맞받아 고기배들을 총출항시켜 어획량을 높이는 데 화력을 집중하였다. 지휘관들의 인품과 정황만, 결심해박이 명령을 받은 즉시에 신속정확하게 실천되고 고기배들의 전투정신이 화약이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행되고있었다. 인민군대의 전투적 기질과 일본새를 놓고 자신들을 하류, 보란, 저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준비를 미리미리 완성하는것과 함께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바다를 비우지 않는 집중어로전, 조건보존을 현양에 따라세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인 결과 오늘날 같은 풍어의 기적을 안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는 조건타발이나 하고 말장난이나 하는 투쟁군, 건달군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회의 수

산부문에서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따라배워 메일메일의 물고기잡이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위에서 대들것만 을 바라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갖는 것은 만들어내고 부추되는것은 보충하면서 어구, 연유와 같은 물자들을 충분히 확보해놓아야 한다. 자신들과 같이 물고기배가 밀려나 시기에 한시간 시간은 더없이 귀중하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고기배들과 어로공들의 실동률,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바다에 물고기가 오를 때 인민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바다에 나가 화선식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지도하여 큰 힘을 넣어 어로공들에게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물고기잡이에 투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서도 최첨단기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려야 한다.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고기배들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실천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수리도 변동되는 어항조건에 맞게 어항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중시어종을 신속히 타고있어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여야 한다.

년말까지는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이상하게 투쟁하면 올해 당이 제시한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모두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구현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치기 위한 총돌진들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들을 현지에서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 바다를 끼고있는 단위들, 고기배를 가지고있는 단위들의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과 현관단위의 일군들은 이번이 당앞에 자신들의 량심과 실력을 똑똑히 검증받았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용약 뛰어들어야 한다.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수산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는 것은 물고기대풍을 안아오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수산부문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어로공들이 자기 초소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사업, 동맹사업의 확대를 바다에 정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선전선동공세, 화선식정치를 힘있게 벌려야 한다.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어로공들에게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물고기잡이에 투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의 다른 부문들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서도 최첨단기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려야 한다.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고기배들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실천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수리도 변동되는 어항조건에 맞게 어항탐색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중시어종을 신속히 타고있어 집중적인 어로전을 벌여야 한다.

년말까지는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이상하게 투쟁하면 올해 당이 제시한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모두다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적극 구현하여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치기 위한 총돌진들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하루빨리 실현할 불라는 의지

전국적으로 660여t의 종자 채취, 근 8억그루의 나무모 생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라는 애국의 열의안고 산림조성사업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종합적 자료에 의하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660여t의 종자를 채취하고 근 8억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한데 이어 나무모를 심을 수 있게 하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투쟁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과 모조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국도환경보호성에서는 올해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기간에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종자와 모를 대량적으로 확보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렸다. 도, 시, 군들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나무종자채취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그 집행을 위한 조

작은 기간에 나무종자를 많이 채취하였다. 모조관리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바늘나무와 넓은 잎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그러하여 적극적으로 나무종자채취계획을 113% 넘쳐 수행하였다. 자강도에서도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기간에 더 많은 나무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사업에 대대적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군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이갈, 잣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종자채취계획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며 대책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김형전군, 혜산시, 보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종자채취에 열중하였다. 김형전군에서는 일군들이 맡은 단위들에 내려가 종자채취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사업을 끈기있게 내밀으로써 여러 수종의 많은 나무종자를 채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혜산시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나무종자채취사업을 힘있게 벌려

줄 불려일으켜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북도에서도 종자채취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을 위한 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 심념을 안고 애국의 마음을 다 닦았다.

연안, 름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미래,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조성에서 종자채취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창성이갈,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종자를 짧은 기간에 채취하였다. 도에서 종자채취를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계획을 128% 넘쳐 수행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가을철국도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모생산에 큰 힘을 넣었다. 나무모생산은 조국에 대한 애국적 열의와 애국적 열의가 한여울을 이루고 있는 짧은 기간에 실현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였다. 산림경영소들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갖추어놓고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도에서는 올해에 왕가들이 든 조건에

맞게 출사나무모기기를 적극 물러나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를 틈틈이 키워냈다. 평안남도에서는 산림경영소들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도안의 산림경영소들에서는 야외제재장, 저장고, 운송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순천시에서는 이미 축산과 나무모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우는데 기초하여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었다. 신양군에서도 자연호흡식판수체계를 세워놓고 많은 나무모를 키워냈다.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등 비롯한 여러 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생산과 철길 주변수림화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고와 뜻을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킬 열의에 넘쳐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 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지열랭난방체계도입전투에 진입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장에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장에 지열에 추진되고있는 속이 힘있게 열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판로굴착공사가 시작되어 편일 혁신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탕같은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일 것이다.》

지난 5일 만경대학생소년 궁전을 찾은 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궁전을 나라의 왕들인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사랑의 요람으로,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네번의 길이 전해져가고 뜨겁게 달아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개건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학생들의 교육요구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과 생활조건들이 그르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파괴교양기지,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뚜렷한 증시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이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천년백만, 만년백만의 깨끗한 량심으로 만들어 공사를 제기에 집중적으로 무조건 내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계절적조건과 공사실정에 맞게 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비롯없이 짜고들고 있다.

또한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하여 자체로 지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인민건설자들의 창조적기회를 적극 발동시켜 합리적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 있다. 궁전내부공사를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령도를 아로세기는 창조자들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타일 한장을 붙여도 먼 후날에 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나가고 있다. 추위가 다가오는 조건에 맞게 실내온도보장대책을 세워놓고 표준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있다. 현재 궁전내부에 재

한 습식공사는 95%계선에 도달하고 추진되고 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하루마감사를 붙이 변형 나게 해제된 양 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체없이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판로굴착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사실적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수km에 달하는 판로굴착공사는 공사량과 조건에 있어서 방대하고 어려운 공사이지만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 공격정신을 다스려 완공을 앞당기고 있다. 이시 천m의 물탱크와 두개의 보조물탱크, 펌프장, 변전소들의 팔조공사가 완공되었다. 화선식선전선동활동들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져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판로굴착공사에 진입한 첫날에 수백m의 토량을 처리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도 싸움이고 바다도 메우는 군인건설자들의 불라는 열의와 투쟁으로 하여 지금 공사장은 맑고더워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김성민

실리가 큰 물동을 새로 건설

121호립업연합기업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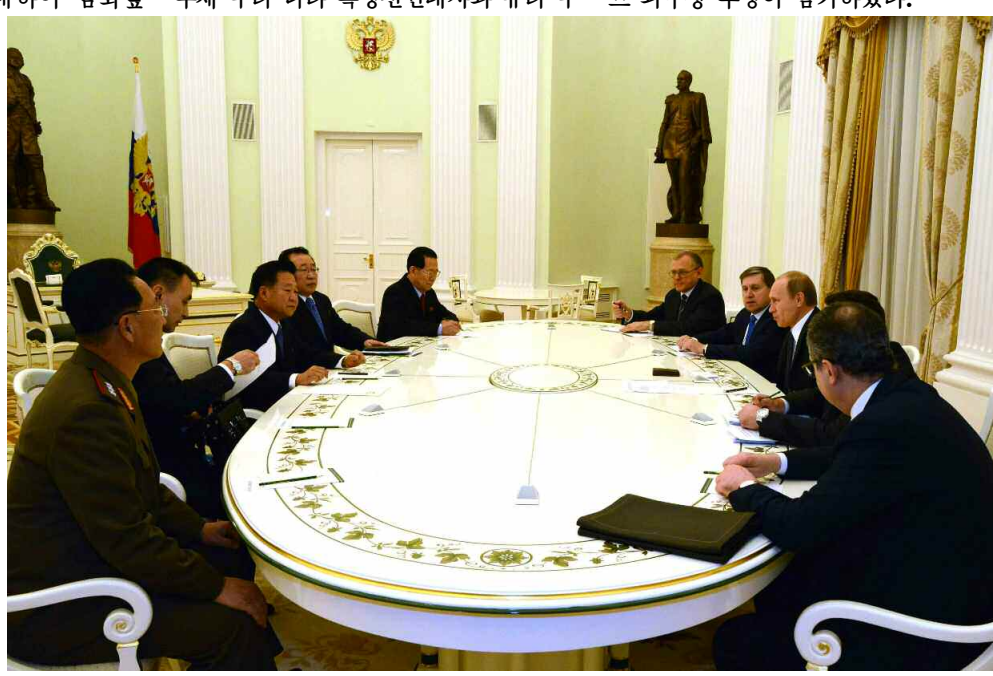
121호립업연합기업소에서 저수능력이 큰 콘크리트물동을 새로 건설하였다. 새로 건설한 콘크리트물동은 종전의 나무물동에 비해 저수능력이 몇배나 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림업부문에서는 때를 이용하여 충분히 마련하며 물길을 정리하고 물동을 든든하게 만들며 때를이기는 기근을 늘리고 그 회귀일수를 줄여야 합니다.》

당위협회의 지도밑에 립업기업소에서는 나무물동보다 든든할뿐 아니라 콘물에도 견디고 물을 많이 잡아둘수 있고도 영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콘크리트물동을 새로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령과 수단을 집중하였다. 립업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지당사를 진행하여 물

동은 그 경제적이기 아주 크다. 새로 건설한 콘크리트물동은 물론높이를 보장하고 물을 함으로 집중시켜 흐르게 함으로써 메마린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장마때 저수지수문을 열어 콘물이 쉽게 빠져서 하여 립업사업소들만이 아니라 장진강기구의 협동농장조원들에서 큰 물에 의한 피해를 극력 막을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물동우로는 통나무를 실은 자동차들이 오갈수 있고 바다마을사람들의 교통상 편리도 도모할수 있어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림업기업소에서는 이번 공사기간 물동과 연결된 70여리의 립산도로도 새로 건설하여 더 많은 통나무를 끌어들이는 수단을 마련하여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특도기자



【모스크바 11월 18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로씨야연방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봉해동지가 18일 크레믈린대궁전에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르비치 푸틴 로씨야연방 대통령을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르비치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신 인사를 최봉해동지가 전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진 뜻깊은 인사를 전해드렸을것을 부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최봉해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신 친서를 표하였다.

인민군 부총참모장, 김형준 로씨야연방 사료부 대령보좌관, 이고리 모르골로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유리 우브리우시 부상이 참가하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여러차례 상봉한데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로씨야와 조선은 가까운 이웃이며 오랜 친선협조의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두 나라사이의 호혜적인 협조를 보다 발전시킬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 탐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봉해동지는 뜻깊은 다음에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김계관 위무성 제1부상, 노광철 조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에 발걸음을 맞추도록 대중의 정신력에 불을 지핀다

화력탄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정책옹위전으로 떠미는데서 틀어진 두가지 문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탄광들이 높고있다. 인포, 남덕탄광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달리고 회안을 비롯한 다른 탄광들도 승벽을 다루며 내달리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참신한 정치사업의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임을 벌수 있게 높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틀어진 두가지 문제가 있다.

혁신성과 인정미이다.

혁신성과 실호

당이 제시한 화력탄증산목표들과를 위한 대책을 토의하면서 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정치사업을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화신적으로 벌리는데가 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벌릴 때만이 대중의 심장에 기적장조의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다.

모든 당일군들이 이런 판점을 지니고 전투장들로 달려나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들은 화신적정치사업의 제 1번수가 되었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벌려나가는 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 대책을 세워나가는 한편 자신들부터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갱막장에 들어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때 평범한 탄부의 자식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대하여 감동깊이 되새겨주면서 진행한 정치사업은 탄부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화력탄증산을 위한 투쟁의 모든 고리들이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썼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있다.

단위들에서 경제과업수행과 관련한 당의지를 하면 일반적으로 보고서와 계획을 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얼마전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당위원회는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대중발동의 또 하나의 열쇠이다.

화력탄증산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속에서도 련합기업소에서는 탄부들과 체육관을 맺들 어지게 건설하고있다.

새 세기 맛이 나게 회한하게 일머리는 건축물들은 탄부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일군들은 갱막장에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을 벌리면서도 탄부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친 할모의 실례도 보여주었다.

이렇듯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모든 정치사업들은 철저히 화신적으로 전환되게 되었

인포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사상사업을 하는 일군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니라 사상의 무기를 들고 목적의식적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실천가, 헌신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화력탄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어 일군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들이었다. 우리가 선봉에서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이것이 그대들의 호소를 심장에 받아안은 열매인 1개에서 체탄능력에 이어진대 비해 탄부들의 운반능력이 떨어져 생산에서 일정

한 지장을 받고있던 때였다. 탄부들의 실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천m의 연신복구전투를 벌리는것이 필요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신복구전투를 위한 돌격대를 꾸리는것과 함께 능력이 있는 일군들을 현장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결된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초급당일군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업기풍은 일군들의 일본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오고 대중을 불려일으키는데서 큰 작용을 하였다. 돌격대원들이 불타오른 인화 버럭과 석수로 하여 쌓인 감탕을 쳐내며 험거운 전투를 벌리던 때 초급당일군은 집에서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현장에 찾았다. 그는 작업의 휴식철을 리용하여 돌격대원들에게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새겨주었다. 또한 어려운 전투의 앞장에서 이신자적의 모범을 보이면서 갱복구전투를 이끌어갔다.

초급당일군이 아니었다. 지배인 김광성, 기사장 김동철, 부비서인 리희남, 리명철 등무들도 2개에서 비롯한 갱막장에서 탄부들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화신적으로 벌리었다. 수천m의 침복교체전투를 비롯한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도 당면장들과 탄부들을 힘있게 불려일으켰다. 그 과정에

들은 생산에서 앞서 탄부들부터 먼저 생각하지 못한 자신들을 맹렬하게 돌리켜보았다.

물론 갱막장을 전투지휘처로 정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혁신하고 위훈으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돋보인다.

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내려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상양상사업을 뜨겁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전투의 정황과 조건에 맞게 생산현장에서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사업을 능란하고 실효성있게 진행하였다는 일군들의 긍정적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과 승결

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속에 모두의 애국적열의는 최대로 폭발되었다.

화력탄증산에서 결실하게 요구되는 탄부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놀라운 헌신적성과가 이룩되었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가공정제관공 리정철동무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대렬에 들어서게 된것을 비롯하여 공장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전변모에서는 실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나를 따라 앞으로!》

남덕탄광 10갱 고속도굴진소대 당세포비서 박창영동무는 어렵고 힘든 일에 남다른 몸을 내대며 돌격구를 열어나가는 돌격전의 기수이다.

지난 9월 어느날이었다. 말려진 파제를 해제하고 전투장을 나서던 탄부들은 웬일인지 당세포비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를 찾아 작업장으로 되돌아간 그들은 문득 굳어졌다.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당세포비서 박창영동무가 탄차에 버럭을 신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있는것이였다.

《다음교대를 생각하니 어디 발길이 떨어져야 말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잠간 손을 댈다는것이 그만...》

소대원들은 모두 뜨거운 것을 삼켰다.

《나를 따라 앞으로!》

이것은 그가 늘 말보구도 실천으로 하는 돌격구령이었다.

어려운 전투의 정황과 조건에 맞게

송남탄광기계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화력탄증산투쟁이 벌어지는 탄광들에 더 많은 설비와 부속품을 생산하여 보장하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수많은 량의 탄차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보장하기 위한 돌격전이 벌어지던 때의 일이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안의 모든 당 행정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사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격식과 틀이 없이

화력탄광 10갱 채탄2중대 당세포비서 조영철동무는 언제나 격식과 틀이 없는 화신적선동으로 탄부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지난 9월 어느날, 탄부들과 함께 일하던 그에게는 무엇인가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탄부들이 랑개를 늦추는 기색이 느껴졌던 것이다.

심판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그무렵 중대는 그달의 아름다운 석탄생산과제를 결사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세포비서 자신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강임을 먹었다.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단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는 탄부들에게 실천상으로 놓고있을 때 채탄1중대가 뒤에서 비박 따라온다고 하면서 호소하였다.

《누구나 화력탄증산투쟁으로 심장을 뒤흔들고있는 지금 지만은 끝물입니다. 화력탄증산목표들과로 통상준을 부를 때까지 진군, 진군 또 진군합시다!》

심판에 만족하여 잠시나마 마음의 랑개를 늦추려고 했던 탄부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었다. 그들은 다시금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떨쳐 일어나 일손을 먹었다.

이렇게 밀어주니 얼마나 좋은가

남덕탄광 2갱 분초급당위원회에서

화력탄증산투쟁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단위들에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지침을 잘하는 당일군들이 있다.

남덕탄광 2갱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그렇다.

이곳 분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함께 책임진

리망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높은 실적을 내도록 하고있다.

지난 9월 어느날이었다. 당면장 일관을 벌려가던 갱장과 기사장의 얼굴에 어딘가 그늘이 비껴있었다.

동발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월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조성되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 실태를 알게 된 분초급당비서 김기호동무는 여러명의 당초급일군들을 데리고 어느 한 곳에 갔다. 그곳에는 동발나무가 없을것이라고, 괜한 고생을 하지 말라고 행정경제일군들이 만류하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웅근 한교대동안이나 전투를 벌려 적지 않은 량의 동발나무를 수집하였다.

갱장과 기사장은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분초급당비서가 한것처럼

【정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책임일군들과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19일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국가 책임 일군들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참관

말에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지로 일떠선 이 공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 식

들이 자동화, 무인화, 무공해, 무진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멋쟁이 공장, 로동자시대의 본보기공장의 회한한 면모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자육이 력력히 어린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로동계급의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공장예술조원들의 공연을 보았다.

전체 참관자들은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투철한 충정의 한마음으로 공장을 우리 나라 식로공업의 기술개건을 추동할수 있는 공장담체 훌륭히 변모시킨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갈것을, 김정일조선의 강성대국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혁명의 지휘정권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운운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들은 모든 생산공정



수백m³의 동발나무를 더 생산

도안림산사업소에서

당일군은 절절히 호소하였다. 당에서 화력탄증산을 늘일데 대하여 호소하였는데 년간계획을 완수하는것으로 우리가 만세를 부를수 있는가, 동발나무생산실적이지 석탄생산실적이다. 동발나무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자. 구체적인 부담이 이루어졌다. 지배인은 동발나무생산보장을 위한 연유와 자제를 맡고 초급당비서와 부비서는 사상사업과 후방사업을 맡았으며 운수직장은 운수기계의 만가등을 보장하게 분담하고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렇게 되어 동발나무를 지체없이 판전에 보내주기 위한 전투가 더욱 힘있게 진행되게 되었다. 사업소일군들은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내일내일이 따로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동발나무를 실은 탄광의 자동차들에 다이나와 부속품까지 보장해주었다.

지난 9월말에 동발나무를 실은 마지막차를 떠나보냄으로써 년간 동발나무생산계획은 빛나게 수행되었다.

지배인 박인근, 초급당비서 황성식동무를 비롯한 초급당비서 행정원들은 광대적업반을 비롯한 생산현장에 나가 대중속에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우리가 선봉에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꽃피는 고상한 가풍

본사편집국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편지들이 오고있다. 그 대부분이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는 사람들과 가정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편지들이다. 전쟁로병, 영예군인의 친혈육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고있는 립성 일군들과 종업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의껏 따뜻한 원호물자들을 초소의 일군들에게 보내주고있는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어머니들...

말 그대로 미덕이 공기처럼 흐르는 내 조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가치까지의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얼마전 본사편집국으로는 개천시 저작동 132인민반에 살고있는 김영철가정의 소행에 대하여 전하는 편지가 왔다.

3대에 걸쳐 이어가는 김영철 가정의 원군길은 아버지인 김동춘로인명부터 시작되었다.

수십년전 어느 한 공장의 작업장으로부터 일할 때 그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현지에서 만나 뵈고 강령적 가르침을 받은 김동춘로인은 한생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안고 살았다. 만근의 혁신자로 동생들을 마치고 되었을 때 그는 막별이근의 아들에게도 참된 삶을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좋은 일을 할 결의를 다지였다. 그때부터 로인은 부지런히 티밭을 가꾸고 집집승들을 길러 초소의 일군들에게 보내주었다. 그 나날 아들 김영철동무와 며느리도 애국의 길로 이끌고 떠밀어주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김영철가정은 원군길을 더욱 힘있게 이어갔다.

몇해전 영예군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새머니를 맞았을 때 김영철동무의 안해 한영애동무는 말하였다.

《원군은 우리 가정의 가풍이다. 너희들이 이 가풍을 더 힘있게 이어가길 바란다.》

3대를 이어 가는 원군길에 꽃피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다.

지난 시기 최첨단조건설정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소에서 혁명적근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인민군인들을 위해 그들이 이룩한 원군길은 그 얼마 없던가.

그 나날 김영철동무의 아들 김충성동무와 며느리 조은숙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끝수목 김영철동무와 그의 가족의 가슴속에서는 충정과 보답의 일념이 새차게 끓어번져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있었다. 《이들이 군인들을 위해 바친 지성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적을수 있었습니까. 정말 돌보이는 가정입니다.》

중앙애송선동사 일군인 김철

국동무와 그의 안해 김영철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웠던가.

《총대가 강해나 나라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는 법이다.》 이것은 해방전 박천군에서 아이때부터 지주집머슴살이를 해온 김영철동무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담겨있는 당부를 잊지 않고 처치사절을 조국보위조초에 바치고 두 딸도 인민군인으로서 내세운 김영철동무, 10여년세월 첫물과일이 날 때면 알알이 플라 초소의 녀병사들에게 보내주고 군복입은 딸들에게서 편지를 받을 때면 녀병사들이 생각나 또 원호물자를 마련해온 그였다.

그래서 초소의 녀병사들은 지성이런 원호물자들을 받을 때면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갈 맹세를 다지곤 하였다.

이 땅의 평화도, 부강번영할 조국의 미래도 총대우에 있기에 원군길에 꽃피는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김형전 로인 평범한 로인 내의가 사는 집이 있다. 하지만 군사관찰되고 이대내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든오해를 넘긴 년로한 몸이지만 아직도 티밭을 가꾸고 집집승들을 기르는 음 66인민반 리범수로인과 홍정순로인, 자식들과 손자들을 앞세우고 해마다 여러차례씩 원군길에 오르곤 하는 그들내외의 모습은 사람들에

그들은 며느리에게 전쟁로병인 시아버지가 말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 물음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군의 주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이 땅에서 날마다 커가는 행복을 지켜야 할 사람이 따로 없겠습니까. 로인내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없는 교양으로 되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이 왜 그토록 강항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는 이야기이다.

누구나 새 가정을 이루며 바라는것은 가정의 행복이다.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은 부모들의 더없는 기쁨이고 그들이 자라 민족의 슬기를 떨치는 과학자가 되고 세계무대에 공화국기기를 날리는 계속인, 이른바 혁신자가 되는것 역시 부모들의 들도 없지는 행복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도 행복도 나이가 있고서야 꽃피는것이 아니라 그 어느 가정이든 원군길에 서서없이 나서서것이다.

성간군 음 222인민반에 살고있는 방춘실동무의 가슴속에는 그 하나하나가 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김형전 로인 평범한 로인 내의가 사는 집이 있다. 하지만 군사관찰되고 이대내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든오해를 넘긴 년로한 몸이지만 아직도 티밭을 가꾸고 집집승들을 기르는 음 66인민반 리범수로인과 홍정순로인, 자식들과 손자들을 앞세우고 해마다 여러차례씩 원군길에 오르곤 하는 그들내외의 모습은 사람들에

그들은 며느리에게 전쟁로병인 시아버지가 말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은 더욱 밝고 창창한것입니다. 중구역 대동문동 25인민반 임송이

원들도 원기회복에 좋은 보약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로병환머니, 많이 잡수셔야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라.》라고 하면서 구원히 돌봐주었습니다. 평안북도산원의 의사, 간호원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의하여 저는 12일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뜻있는 선군절을 맞으며 기쁜 마음으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시는 것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가 펼쳐진 내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전쟁로병들은 땅의 사랑을 한껏 받아안으며 로병을 모르고 앓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입니다. 동창군 대우로동자구 58인민반 전정로병 김옥경

개천시 준혁리에 사는 영예군인 김성일동무

어제 날 비행사들의 활무대이다. 그들의 꿈도 명예도 금지도 하늘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비행사들은 자기들의 삶이 땅우에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영예군인들은 정말 기쁜 사람들입니다.》

비행사였던 김성일동무는 5년전에 그 하늘을 떠나왔다. 전투원무수행중에 그는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치명상이었으나 당의 사랑은 그의 생을 이어주었다.

제대명령을 받은 김성일동무는 눈을 들어 가없이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을 추연히 바라보았다.

(정든 하늘을 떠나 내어 살라.) 가슴은 미어졌어도 성하지 못한 몸은 이미 정든 하늘에 작별을 고한것이었다. 침상에서도 하늘이 그리워 모든 날을 그렇게 성하지 못한 손에 원수필을 잡았다.

원군은 우리 가정의 가풍이다. 너희들이 이 가풍을 더 힘있게 이어가길 바란다.》

3대를 이어 가는 원군길에 꽃피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다.

지난 시기 최첨단조건설정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소에서 혁명적근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인민군인들을 위해 그들이 이룩한 원군길은 그 얼마 없던가.

그 나날 김영철동무의 아들 김충성동무와 며느리 조은숙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끝수목 김영철동무와 그의 가족의 가슴속에서는 충정과 보답의 일념이 새차게 끓어번져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있었다. 《이들이 군인들을 위해 바친 지성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적을수 있었습니까. 정말 돌보이는 가정입니다.》

중앙애송선동사 일군인 김철

저 하늘이 날면 역센 날개 펼쳐주고 그 품에 안기며는 사랑만을 더해준 배두의 신념지던 용감한 매들 아버지 그 품 지켜 이 한몸 바쳐가리 아-우리는 하늘의 전초병 돌이를 연우대신 폭탄을 더 달라

... 시어는 현란하지 않았어도 감정은 자못 진실하고 절절하였다. 이런 시들을 쓰는 그도 또였다. 그 시들은 옛 전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옮겨졌다.

전우들은 화답해왔다. 시가 좋다고 또 써보내달라고. 그들의 열렬한 고무와 지지로 김성일동무의 펜끝에는 불이 일었다. 그는 비행사시절의 추억 깊은 부부비행사에 대해서도 썼고 은빛매의 충실한 방조자인 비행사의 안해들에 대한 시도 썼다.

지난 3월 한 비행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의 손길아래 역세게 자라난 여성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여성비행사의 노래》가 나와야 한다고 하시셨을 때에도 그는 남다른 뜻을 들고 《우리 여성비행사》라는 시구절을 엮어내었다.

본사기자 허명숙

꽃이나 그 시절에 비행복을 입고서 푸른 하늘 꽃구름에 고운 꿈을 심었네 은빛날개 반짝이며 만리창공 날으면 파사로운 해빛이 우리 향로 비쳐주네 아-우리는 여성비행사 저 하늘의 용감한 처녀네

... 조종간을 틀어린 우리 손은 작아도 결사옹위 충정의 맘 저 하늘을 덮었네

그의 시는 부대전우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았다.

부대전우들의 열렬한 공감, 그것은 그 어떤 글재간에 대한 찬사이기 전에 오늘날도 하늘을 떠나지 못하는 그의 심장, 영연히 그 하늘에 전사의 마음을 두고 참되게 살라는 옛 전우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고 기대였다.

그 믿음과 기대를 안고 김성일동무는 오늘날도 시를 쓴다.

그가 불리는 시장으로 날아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조국,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시대 애국자들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문학의 세계, 변함없는 애국의 《하늘》이다. 그 하늘이 있어 어제날 비행사의 삶은 역세게 고동된다.

본사기자 허명숙



당보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심숙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맹산군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우리 나라 팀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평양 1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팀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대륙에서 연맹연맹도 진행되었던 2015년 동아시아컵경기대회 2단계 예선경기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홍콩, 팔도, 중국 대륙팀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팀은 13일 첫 경기에서 중국 홍콩팀을 2:1로, 16일 2경기에서 팔도팀을 5:1로 이기

고 19일 마지막경기에서는 중국 대륙팀과 0:0으로 비겼다. 우리 나라 팀은 2단계 예선 경기에서 1위를 함으로써 2015년 8월에 진행되는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우리 팀은 13일 첫 경기에서 중국 홍콩팀을 2:1로, 16일 2경기에서 팔도팀을 5:1로 이기

고 19일 마지막경기에서는 중국 대륙팀과 0:0으로 비겼다. 우리 나라 팀은 2단계 예선 경기에서 1위를 함으로써 2015년 8월에 진행되는 동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부닥치는 생활상안력으로 하여 큰방의 고철업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돈때문에 병원문앞에도 가볼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난 1월에는 막시녀성 마저 길가에서 일어서고 큰팔을 상하게 되었다. 갈수록 높아만지는 빛 독촉의 목소리, 이플레이아 이룰수 없는 꿈과 재능... 맹혹한 사회의 현실앞에서 삶의 초보적인 희망마저 없는 어머니와 두 딸들은 결국 구명관을 띄워놓고 최말은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말았던 것이다.

이렇듯 몇몇 특권계층이 위두르는 자본의 횡포속에 철대다수 근로대중의 리익과 꿈이 마구 짓밟혀지는 곳이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이런 사회에 무슨 앞날이 있고 미래가 있었는가. 아이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소중히 여겨주며 감사안아 꽃피워주는 품, 설사 부요없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구멍같은 집에서 마음껏 희망의 노래를 달아주는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조국과 온갖 사회악을 소중한 꿈이 마구 짓밟혀지는 남조선사회.

과연 어느 사회의 앞날이 더 밝고 창창한것인가. 진정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 사랑, 미래사랑의 따뜻한 햇빛속에서 모든 꿈이 꽃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조국에 세상에서 제일이다.

본사기자 리건일

대가정의 료리, 미덕의 향기

우리 집의 말형

강서탄광 전진쟁쟁 개장 최정길동무와 그의 안해 김정순동무는 제가 제대되어온 때로부터 수년 세월 만행, 말형수가 되어 저의 건강과 평생을 세심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최정길동무는 태양길과 평명성질, 진솔함과 선군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들과 기념일들에 온 가족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보약들과 식료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 가정에서 준비한 애송식품등도 보여주시면서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참된 교육자의 모습

김성주소학교 오은희선생님이 밤늦게 병원호실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그후 하루도 번지지 않고 병원에 우리 집을 찾아와 주신이의 담담교원인

사랑속에 로쇠를 모른다

지난 8월 13일 저는 뜻밖의 병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평안북도산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80고령에 큰 수술을 받는다는것은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도 있듯이 이곳 의료일군들의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저는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꽃피어나는 꿈, 암암한 미래

어떻게 해서나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을 공부시켜 내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 그들이 그러므로 소박한 희망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부부가 아무리 뼈까지 일해도 평민계층의 사람들에게 들어나가는 빛더미뿐이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움의 열망을 안고있는 딸들은 대학에 가고싶어도 엄중한 학비로 하여 갈수 없었다. 엄친대 엄친으로 아버지인 김씨는 방방암에 걸려 믿음보다가 가정을 더 많은 빚을 남겨놓고 10여년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가정을 떠맡게 된 어머니 박씨녀성은 어떻게 하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 식당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로임은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생활난에 허덕이다 못해 그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되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중앙계급교양관에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유해들과 유물들 새로 전시

중앙계급교양관에 일제의 친인공노할 만행을 단천하고 고발하는 유해들과 유물들이 새롭게 전시되어 우리 근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천마군 서교리 뽕골에서는 광석탐사과정에 길이 78m, 높이 2m, 너비 1.8m의 폐경이 발견되고 그안에서 338구의 유물들과 300여점의 유물들이 나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해방전 미프이를 비롯한 유물들은 천마지구(당시 의주군 고령사면)에서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연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제의 죄악에 찬 과거를 고발하는 증거물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의 집단체학만행을 단천하에 폭로하는 유해, 유물들을 보여 참관자들은 지위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 일제의 죄악을 두고두고 새기고 철저히 결산하며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 중한 사회주의 내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갈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꽃피어나는 꿈, 암암한 미래

수상자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위대한 영도자 로모시어 미래가 밝고 창창한 나라라고 자기를 격동된 심정들을 아낌없이 토로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어떻게 해서나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을 공부시켜 내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 그들이 그러므로 소박한 희망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부부가 아무리 뼈까지 일해도 평민계층의 사람들에게 들어나가는 빛더미뿐이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움의 열망을 안고있는 딸들은 대학에 가고싶어도 엄중한 학비로 하여 갈수 없었다. 엄친대 엄친으로 아버지인 김씨는 방방암에 걸려 믿음보다가 가정을 더 많은 빚을 남겨놓고 10여년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가정을 떠맡게 된 어머니 박씨녀성은 어떻게 하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 식당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로임은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생활난에 허덕이다 못해 그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되

어떻게 해서나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을 공부시켜 내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 그들이 그러므로 소박한 희망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부부가 아무리 뼈까지 일해도 평민계층의 사람들에게 들어나가는 빛더미뿐이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움의 열망을 안고있는 딸들은 대학에 가고싶어도 엄중한 학비로 하여 갈수 없었다. 엄친대 엄친으로 아버지인 김씨는 방방암에 걸려 믿음보다가 가정을 더 많은 빚을 남겨놓고 10여년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가정을 떠맡게 된 어머니 박씨녀성은 어떻게 하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 식당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로임은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생활난에 허덕이다 못해 그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되

어떻게 해서나 한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 자식들을 공부시켜 내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에서 그들이 그러므로 소박한 희망은 한갓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부부가 아무리 뼈까지 일해도 평민계층의 사람들에게 들어나가는 빛더미뿐이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배움의 열망을 안고있는 딸들은 대학에 가고싶어도 엄중한 학비로 하여 갈수 없었다. 엄친대 엄친으로 아버지인 김씨는 방방암에 걸려 믿음보다가 가정을 더 많은 빚을 남겨놓고 10여년전에 세상을 하직하였다. 가정을 떠맡게 된 어머니 박씨녀성은 어떻게 하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한 식당에 취직하였다. 그러나 그 가난한 로임은 세 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생활난에 허덕이다 못해 그들은 집을 팔지 않으면 안되



조선인민들에게 해사될수 없는 불행과 고통들을 들뜨운 마음으로

천백교양관에서 전시된 일제의 만행에 대한 기록을 들뜨운 마음으로

본사기자 정순애

